

Roubos, K., *II Kronieken*,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Callenbach, 1972.

Sarna, Nahum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Scharbert, J., rb in: G. Johannes Botterweck & Helmer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 Stuttgart: W. Kohlhammer, 1973 (808-842).

Seow, C.L., *Ecclesias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Shead, A.G., Ecclesiastes From The Outside I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5, 1996 (24-37).

Speiser, E. A., *Genesi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4.

Stahli, H.P., אָט, in: Jenni & Westermann(ed.), *Theologische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765-778).

Terrin, S., Fear, in: G. A. Buttrick(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2, Nashville: Abingdon, 1981.

Vriezen, Th. C., *Hoofddlijnen der theologie van het Oude Testament*, Wageningen: Veenman en Zonen, 1977

Westermann, Claus, *Der Segen in der Bibel und im Handeln der Kirch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8.

Wilson, Lindsay, The Book of Job and the Fear of God, *Tyndale Bulletin* 46. 1, 1995 (59-79).

Zimmerli, Walther,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 Theologie*, Fünfte Auflage,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W. Kohlhammer, 1985.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과 원동력

십자가와 부활이해를 중심으로

The Essence & Source of Power
in St. Paul's Life & Ministry:

Focusing on His Understanding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신경규 교수

Prof. Dr. Kyung Kyu Shin

I. 들어가면서	_ 52
II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	_ 53
III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 십자가와 부활	_ 58
1. 바울 선교의 내용으로서 '십자가의 도'	_ 59
2. 바울 선교의 근거로서의 십자가와 부활	_ 62
3. 바울 선교의 형식과 목적으로서의 십자가	_ 64
4. 바울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으로서 부활	_ 68
5. 바울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으로서 성령의 능력	_ 71
6. 바울의 인격과 삶의 모범: 선교사역과 삶의 열매	_ 74
IV. 맺는 말	_ 77

주요어 | 바울의 삶, 바울의 선교사역, 십자가, 부활, 성령의 능력

한글요약 |

선교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며, 그는 이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애썼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선교의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함에 선교 행위 자체의 근거가 되며, 형식이고, 목표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선교의 근거가 된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하였고, 단순히 그 내용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 바울은 전도 인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일생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전도 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도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선교 행위의 형식이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십자가 고난'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울 선교사역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는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았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고난은 능히 이기면서 사역하였다. 바울은 복음전파의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구속이 자신의 선교사역을 통해 완성되기를 소망하였다.

아울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삶은 그의 성품과 삶을 그리스도와 닮게 하였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모범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복음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Abstract

The essence of missionary work is proclaiming the Gospel. The meaning of the cross was filled in the ministry and life of the apostle Paul. Paul wanted to communicate the Gospel, and only the Gospel. To Paul,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re the foundation, form and goal of his ministry, as was the content of his message. He was called as an apostle for the heathen. Not only did he proclaim the Gospel to them, but he also lived the life of cross and resurrection. He himself experienced sufferings of the cross throughout his missionary work. Paul suffered a lot throughout his ministry because of the Gospel, and he realized the meaning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rough his suffering. In that sense, it can be called "the suffering of the cross." Though he experienced much suffering, he did not lose the power and joy of the resurrection.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he could overcome those sufferings and performed his ministry. He rejoiced his sufferings during his ministry of evangelizing the heathen, and hoped to accomplish the redemptive ministry of Jesus Christ through his life and ministry. All these factors-suffering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experience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helped Paul form his Christ-like personality and it, furthermore, became the foundation to communicate the Gospel with others.

신경규, 고신대 선교언어학과 교수.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Doctor of Missiology) 학위를 받았다. 이 글은 필자가 지도한 윤병국 목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선교지도자로서의 바울의 선교리더십"에서 많은 부분 인용, 보완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그와 공저한 것이다.

I. 들어가면서

신약 성경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고, 신약의 신학은 선교신학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였고,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었다. 스티븐 닐(Stephen Neil)의 말대로 “초대교회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였다.”²⁾ 그 당시에는 선교가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이었고,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표현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교신학의 시작이 곧 일반 신학의 시작이었다. 신학이란 선교사역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³⁾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그는 ‘신학을 체계화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증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 그를 신학자라고 한다면 우선 선교신학자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⁴⁾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을 선교와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신학의 ‘장(場)’⁵⁾이 선교적 상황이었고 선교현장이었기 때문이다.⁶⁾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바울을 전도자와 선교사의 관점에서, 바울의 삶과

2) Stephan Neil. 1990[1964].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London: Penguin Books Ltd.), 21. “The church of the first Christian generation was a genuinely missionary church.” cf. Herbert Kane은 초대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기독교인의 특징으로 ‘사랑과 순결’을 들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인의 삶을 영위하였다. Herbert Kane. 1978[1993].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3) 그런 의미에서 Martin Kähler가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지극히 타당하다. Martin Kähler. *Schriften zur Christologie und Mission* (Munich: Chr. Kaiser Verlag, 1971), 190.

4) 많은 연구에서 바울을 이론적인 신학자라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바울은 신학자이기 이전에 전도자였고, 선교사였다. 그의 신학은 선교적 관점에서 보아야만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서정운, “선교신학자, 바울.” 『목회와 신학』, (1991년 12월호), 117.

5) 혹은 ‘삶의 정황’ (Sitz im Leben).

6) 서정운, 117.

신학을 선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기로 한다.

II.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

바울은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 간 사도였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치열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회심 이전의 바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엡 2:1-10). 특히 바울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는 자신을 염두에 둔 듯 회심 이후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5-6). 그가 율법과 관련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르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빌 3:6)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는 그의 삶이 순결한 제물이기를 소원했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소원했다(빌2:17).¹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명자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두려움으로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고전 9:27). 그는 결코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열망하였다(빌1:20-21).¹¹⁾ 이러한 열망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모습이 그로 하여금 충성된 증인의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원동력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재평가한다. 그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κέρδη)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ζημία)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7-8)고 하여 과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¹²⁾ 과거에는 ‘이익’(κέρδη)에 속하는 것이었던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인종적 순수나 율법에 비추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자기 의(빌 3:5-6)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었기 때문에 돌아켜 보니 실상은 ‘손실’(ζημί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의’ 자체는 좋은 것이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그러한 의라도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큰 ‘손실’이라는 고백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7b-9)고 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는데 장애가 되면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렇듯 바울이 세상의 것을 보는 기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고 도움이 되지 못하면 ‘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의 삶과 영성은 그리스도께서 규정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평가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바울의 사역과 삶의 목표였고 원동력이었다.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

바울의 영성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었다.¹³⁾ 바울은 출

10)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θυσια)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빌 2:17-18)

1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0-21).

12) ‘κέρδη’ (이익: gain, profit)나 ‘ζημία’ (손실 disadvantage)는 지극히 상업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용어들이다.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672-3; Idem.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888-892.

13) ‘영성’이라는 용어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힝글리(Hingley)는 “영성을 정의한다는 것이 어렵기로 ‘악명 높다’(notoriously difficult)”고 말할 정도로 영성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C. J. H. Hingley. 1995. “Spirituality.” In *New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and Pastoral Theology*. edited by David J. Atkinson and David H. Fie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807-809. 영성이라는 용어가 현대에 사용되는 경위와 원인에 관해서는 「고신신학」 2호(2000년 겨울)에 게재된 전광식 교수의 “영성운동에 대한 비판”, “경건의 길”, 그리고 황창기 교수의 “신약 ‘경건’의 기독교적 이해”를 참조하라.

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없으면 바울이 없을 만큼 그의 영성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의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형성된다. 그 자신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갈 2:20).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매번 밝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δούλος)”이었다(롬 1:1, 빌 1:1).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포로’(δούλος 노예)가 된 사람의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바울은 오직 그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아무 것도 그를 붙잡지 못하게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잡혀 살고 그것만 잡으려고 쫓아갔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빌 3:12).

III.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시작되었다.¹⁴⁾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고 있다. “나는 사도 중의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전 15:9)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내

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殘害) 하였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 하였음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갈 1:13).

이러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이 된다.

1. 바울 선교의 내용으로서 ‘십자가의 도’

바울의 삶과 메시지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존 스토틀(John Stott)는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히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대조되는 의미”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⁶⁾ “갈보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이에서 대단한 구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동일하게 갈보리의 보배 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능력 있다”라고 루이스(Jessie Penn Lewis)는 말한다.¹⁷⁾ 바울 역시 자신의 교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전한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을 온 았았기 때문이었다(고전 1:17).¹⁸⁾ 바울의 증거가 “십자가의 도 대신에 간의 지혜를 대치시키거나 그 도를 철학으로 대치하였다면, 그의 설교는 력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신적인 요소를 상실하고 인간의 지

15) 이 부분 이후는 필자가 지도하면서 집필을 도왔던 윤병국의 “타문화권 선교 지도자로서의 바울 선교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002)을 인용, 보완하였다.

16) John Stott. *The Cross of Chris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6). 225.

17) Jessie Penn Lewis. *The Cross of Calvary*. 채천석 역. 『갈보리의 십자가』(서울: 기독교문교회, 1998), 106.

18) Charles Hodge. *Th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김영배 역. 『도전서 주석』,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5), 54.

14) F. F. Bruce.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69-73. 제8장 “교회를 핍박하는 자” 로서의 바울을 참조하라.

이상의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복음에서 그 능력을 빼앗는 것이었다.”¹⁹⁾

따라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바클레이 (William Barclay)의 지적처럼 “바울은 십자가가 그 자체로써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장벽을 무너뜨리며, 기독교의 설교자의 첫째의무는 어떤 걸치레 없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²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천명하였다 (고전 1:18).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신 십자가형을 통한 구원의 도이며, 이 도는 비록 버려진 자,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²¹⁾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의 지혜의 딸”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다. “지혜를 버리고 능력을 선택한 것, 즉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파괴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좌절시키셨다는 그의 의도를 밝히셨기 때문”(고전 1:19)이라고 스토틀는 지적하고 있다.²²⁾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다면 바울의 선교사역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메시지로 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성구는 이러한 바울의 삶과 선교사역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19) *Ibid.*, 54.

20) William Barclay. *Ambassador for Christ*. 이희숙 역. 「바울의 생애와 선교」(서울: 종로서적, 1989), 112.

21) Hodge, 55.

22) Stott, 28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 6:14)

“우리가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행 28:30-31)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형태의 십자가 처형”을 받 죽었다.²³⁾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는기 기억해 낸다면 “바울의 십자가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미련 것이었고 심지어 미친 것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²⁴⁾ 령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도(道)는 그 당시 인기가 없었다(고전 1:1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고전 1:23). 스토틀의 지적과 같이 십자가 도는 “유대인의 독선과 헬라인의 지성주의에 배치되는 것이었다.”²⁵⁾ 슘

23) Martin Hengel. *The Crucifixion*. 김명수 역. 「십자가 처형」(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39ff, 40-51. 참조하라.

24) John Stott. *Our Guilty Silence*. 김영배 역. 「전도하지 않는 죄」, (서울: 기독교문서선5 1981), 28.

25) *Ibid.*, 45.

가가 수치와 모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였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그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거리낌없이 확신 가운데 증거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자체였다.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자증(自證)하는 힘을 가지고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를 장식할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흐리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²⁶⁾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울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2. 바울선교의 근거로서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선교의 내용이었던 뿐 아니라, 자신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함에 선교 행위 자체의 근거(foundation)가 되며, 형식(pattern)이 되며, 목표(goal)가 되었다.

십자가를 수치로 알아 핍박까지 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πρεσβεία: ambassador)이 되어 예수로 인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후 5:18-20). 전도자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다"(고전 2:2).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이후로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²⁷⁾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θεοῦ διακονία)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각 서신들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δοῦλος Χριστοῦ), '사도'(ἀπόστολος)로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십자가의 대적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데 충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²⁸⁾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선교의 근거가 된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며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일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자체가 전도자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 전도자의 삶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효과를 주게 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나아가 전도인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후 11:23-28). 이전에 십자가의 대적자였던 바울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진노 아래 있던 자를 화목하게 하시며, 더 이상 징죄 받은 자로 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이 구원의 비밀, 해방과 자유의 비밀을 타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일생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

27) F. W. Grosheid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3), 59.

28) 그리스도의 일꾼(고후 6:4; 11:23; 골 1:23,25; 딤후 4:6; 고전 4:1; 롬 15:16), 예수 그리스도의 종(롬 1:1; 빌 1:1), 사도(롬 1:1; 고전 1:1; 고후 1:1; 갈 1:1; 엡 1:1; 골 1:1; 딤후 1:1; 딤후 1:1) 등의 사용

26) Barclay, 112.

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었다(딤후 2:4).

3. 바울 선교의 형식과 목적으로서의 십자가: 선교와 고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다. 이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교사는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도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고후 4:10-11; 6:4-10; 빌 1:29).²⁹⁾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필연적인 선교 행위의 형식(form)이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외적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그 자신 내부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앞으로의 고난이 예고되었다. 바울이 회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16)고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을 인하여 그가 고난받을 것을 예고해 주셨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대적자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고생하였다.”³⁰⁾ 바울이 복음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29)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4:10-11).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고후 6:4-10).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

30) William Hendrickson.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박상훈 역. 「고린도후서주석」(서울: 아가페, 1995), 341.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一週夜)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듯이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받았다. 그 고난은 바울이 겪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십자가 고난’이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전 16:9).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여 도시 전체가 들고 일어나곤 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없이 받았던 이러한 바울의 십자가 고난의 열매로서 마침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의 사역 속에 이방을 향한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참된 생명의 세계 종교가 되어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받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후 12:7-12).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나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

고 하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딤후 1:8).³¹⁾ 바울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 메시지의 전달자들도 반대하기 마련이므로 선교 행위에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딤후 1:11-12 3:11-12; 4:5 참고).³²⁾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정권을 성취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통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셨듯이 '십자가적 희생'을 통하여 선교사의 선교사역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³³⁾

바울은 선교사역의 현장 속에서 숱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것이 기꺼이 감수하였다. 그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말하고 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울의 삶, 사상, 민족적 편견, 혈통에 대한 자부심, 배타적인 계층"까지 변화시켜 버렸다.³⁴⁾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 모욕,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에 십자가의 능력은 바울 선교사역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결박과 환란이 각 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행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31) Donald Guthri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128.

32) John Stott, 「디모데후서 강해, 복음을 지키라」 김영배 역. (서울: 엠마오, 1987), 35.

33) Stott, *The Cross of Christ*. 315-337. 스토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간의 관계를 6가지로 진술한다. 스토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간의 관계를 6가지로 진술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을성 있는 인내를 고무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숙한 거룩함으로 이끄는 길이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이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합리적인 신앙의 기초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연대적 사랑의 증거이다.

34) Lewis, 107.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환란과 결박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감동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는 그 정반대의 것이다. 비록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행 1:24).³⁵⁾

바울은 자기가 들은 메시지를 단순히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 즉 자기 자신을 주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움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살전 2:8). 이것이 바로 복음전과 행위의 본질이다. 살아 있는 기독교 사역은 희생이 따른다.³⁶⁾

바울은 참 사도의 표시로서 '고난 겪음'을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사도와 비교하며 진술하고 있다(고후 11:23-30).³⁷⁾ '거짓 사도' (Ψευδαπόστολοι), '궤환의 역군' (ἐργάται δόλοισ),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μετασχηματιζόμενοι εἰς ἀποστόλους Χριστοῦ)은 자기를 자랑하며, 높은 자로 군림하나(고후 11:20), 참 사도인 자신은 낮추고(11:7), 그리스도와 고린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염려한 것을 참 사도로서 자신의 선교적 행위의 핵심에 두고 있다.

그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갈 6:17),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한다(골 1:24).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서 환란을 받으며 부활을 체험했다 (딤후 3:11).³⁸⁾ 즉 자신이 궁핍하며 환란 가운데 처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

35) *Ibid.* 283.

36) Leon Morri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50.

37)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남도록 하고 육에 감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부득이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후 11:23-30).

38) "궤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견지하셨느니라" (딤후 3:11).

을 구해 주시는 생명을 체험했던 것이다(고후 1:5).³⁹⁾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 선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풍성함을 체험했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고,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대로 전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이 효력을 이루어 유익을 보는 자가 많이 생기기 기대하였다.

4.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으로서 부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뒤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선교사역으로 헌신하였다.⁴⁰⁾ 바로 그 끊임없는 구령의 열정과 복음 증거를 가능하게 했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헨드릭슨(Hendrickson)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원천(源泉)일 뿐 아니라 그들의 현재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이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었음을 말하고 있다.⁴¹⁾ 바클레이는 “바울에게 있어서나 초대교회 전체에 있어서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끝까지 변함 없는 사실이였다”고 말하고 있다.⁴²⁾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 자신의 전인격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하

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는 역천임을 역설하였다(롬 4:25).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다음과 같은 승리의 말로 끝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리셨다.’”⁴³⁾ 십자가의 희생은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회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 자신의 생애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항상 내세울 수 있었다. 그 능력은 바울의 전 생애를 일신시켰다.”⁴⁴⁾ 궁극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받은 모든 개종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할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밖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⁴⁵⁾

바울이 체험한 부활의 능력은 결단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분리될 수 없다.”⁴⁶⁾ 즉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셨느니라”라고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였다(롬 4:25). 그리고 “육신으로 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였다(롬 5:10).

브루스(F. F. Bruce)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승으로 전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목하여 볼 것은 바울이 전했던 전승은 그가 받았던 것보다 더 풍부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39) 고린도후서 1:5에서도 같은 의미를 제시해 준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한다(고후 1:9).

40) Geerhardus Vos. *The Pauline Eschatolog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53), 136ff, 215ff. 보스는 바울의 절대적인 확신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41) Hendrickson, 445.

42) Barclay, 125.5

43) *Ibid.* 126. 롬 6:4; 7:4 고전 6:14; 고후 13:4; 갈 1:1; 빌 2:9; 엡 1:20; 골 2:12. 참조.

44) John Drane. *Paul*. 이종수 역. 『바울』(서울: 두란노서원, 1990), 114.

45) *Ibid.* 114.

46) Victor Paul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New York: Abingdon Press, 1968) 163.

록을 그 자신이 개인적인 증거로써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바울은 특히 자신이 받았던 내용을 강조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전 15:3-4).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의 생애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었다(고전 15:19). 하지만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를 감수할 수 있었다(고전 15:31).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는 강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라고 하였다.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였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본받기를 강하게 열망하며 선교사역의 현장에 참여하였다.⁴⁸⁾

바울의 선교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과 행위 그리고 다른 이방인의 삶 속에서까지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선교사역에 동참하였고 담대하게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였다.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 역시 바울에게 있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양도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⁴⁹⁾

이러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은 바울의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전 15:31).

5.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그의 종말론적 신앙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ἐν Χριστῷ)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already) 도래하였기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세대’(this age)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일이 남아 있기에(not yet) 그는 또한 ‘저 세대’(the age to come)의 윤리로 살아야 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사역의 기본적인 동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ἐν Χριστῷ) 행하는 것이었다.⁵⁰⁾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때때로 다르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공기를 숨쉬며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바클레이는 말하고 있다.⁵¹⁾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착된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리고 신실히 믿고 따르는 것이다. 바울의 삶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47) Bruce, 84.

48)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1)에서 이러한 그의 심정을 엿 볼 수 있다.

49)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539-545. 리델보스는 성령론적 관점에서 부활의 몸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한다는 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있는 것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롬 8:9)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령의 전능하심에 의해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된다. 그것은 성령은 이제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신다. 부활 전후의 삶 사이에 관계를 정립하는 길과 이 삶에서 저 삶으로 넘어가는 것은 성령이며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고전 15:50; 고후 3:18; 4:10,11,16,17; 고후 5:5; 롬 14:17; 엠 5:14; 빌 3:10,21).

50)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는 바울 서신에 164회 나타나며, 바울 신학체계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개념이다. 박수암, “바울이 가진 종말사상과 윤리.” 『목회와 신학』(1991년 12월), 151.

51) Barclay, 188.

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삶으로 규정하고, 또 기술할 수 있었다.⁵²⁾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통치의 구체적, 현실적 실재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실존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세계(Regnum Christi)이다. 이 세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의 세계이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바울의 선교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었다(행 13:6-12).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막중하면서도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그를 믿으라’는 것이었지만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유대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다.⁵³⁾ 바울이 이 개념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바울의 선포는 미련한 자들(μωρια) 사이에서나 말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였다(고전 1:23).⁵⁴⁾ 그러므로 바

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서 불러 일으켰던 거부 반응은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원천적인 동인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열매 맺는 전도 방법의 요체와 그 동인을 철저히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의 역사만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메시지를 수용하게 할 수 있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다. 바울은 이것을 아래와 같이 증언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살전 1:5-6).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1-5)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주지시켜 주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

52) Loc. cit.

53) 고전 2:2; 15:3b-4; 갈 3:1; 살전 1:9-10. 참조.

54)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고전 1:23) 번역된 헬리어 ‘μωρια’에서 오늘날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을 줄 때 욕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 ‘moron’(天癡)이 나왔다.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전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 하거나 받아들이게 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거 한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임을 지적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 3:1-3)

이러한 바울의 언급들을 통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성공적 결실의 원천을 살펴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성령은 소명의 필수적 조건이다. 바울은 교리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차가운 이론 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뜨거운 목회자였고 선교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선교사였다. 그를 사로잡고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을 주도하셨던 성령 하나님도 활동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동적(dynamic)인 능력(δύναμις)의 하나님의 영이셨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선교사 바울의 삶은 '성령'의 능력(the power of the Spirit)에 사로잡힌 삶이었다.

6. 바울의 인격과 삶의 모범: 선교사역과 삶의 열매

선교사역은 단지 인간적인 말로만 전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다.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말보다 사역자 자신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범이 뒤따라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즉 "기독교의 모든 사역에 있어 사역자의 인격이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⁵⁵⁾

르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사도 바울이 제자 양성에 무엇이 필요하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는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모범(模範)의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⁶⁾

바클레이는 부활의 능력과 바울 자신의 삶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바울은 부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출과 밀려오는 조수와 같은 능력을 보았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능력이었다."⁵⁷⁾ 이와 더불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역사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 15:18)고 말하였다. 이는 곧 복음전파가 자신의 말과 더불어 인격적인 삶의 모범까지 수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하신 것" 외에는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⁵⁸⁾ 즉 자신의 모든 공적은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동등한 영예와 공적으로 돌렸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는 차원에서 더욱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까지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존 스토틀트는 '도를 받는 것'에 대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한다. 즉 "복음의 진리를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가까이 따름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⁵⁹⁾

56) Leroy Eims. 1981[1992]. *The Lost Art of Disciple-making*. 김의자 역. 「제자양성의 비결」(서울: 보이서사, 1992), 78. 사도 바울의 모범된 사역에 관해서는 행 15:41; 행 18:23; 행 20:31; 살전 2:11-12을 참조하라.

57) Barclay, 135ff.

58) Hendrickson, 266. 행 13:6-12; 14:1-3; 14:8-10; 16:16-18; 16:25 이하; 19:11-16. 참조.

59) John Stott, 「복음, 종말, 교회: 데살로니가전후서」, 정옥배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35.

55)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8), 139-140.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지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4:16)고 말한다. 헨드릭슨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그가 ...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고전 11:1)라고 부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⁶⁰⁾

바울의 인격과 모범적인 사역의 결과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하는 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서 헨드릭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들과 함께 있었다. 결신자가 전혀 생기기 전에도 바울 일행의 진지함과 헌신과 열성과 그리스도를 위해 수난을 감수하려는 각오 등은 뚜렷이 나타났던 것이다.”⁶¹⁾ 바울과 선교일행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끌리어 나왔고 그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현존 안에서의 삶”이었다.⁶²⁾ 진정한 선교사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범 된 삶과 인격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한사람의 훌륭한 선교사로서 동시에 모범을 보이는 인격과 삶을 통해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갔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는 말을 자신 있게 하였던 것이다.

60) William Hendrickson,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김용섭 역, 『데살로니가전후서』(서울: 아가페출판사, 1994), 73.

61) *Ibid.*, 74.

62) Barclay, 138.

IV. 맺는 말

선교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가장 중심부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존 스토티의 말은 타당하다.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며, 그는 이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애썼다(고전 1:23; 2:2; 갈 6:14). 이전에 혐오스러웠던 십자가가 자랑스러워 변하였고, 십자가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하였고, 단순히 그 내용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자신의 연약함은 외적인 핍박과 고난, 내적인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자와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부활의 기쁨을 가졌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역하였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고후 4:7-12). 바울은 복음전파의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구속이 자신의 선교사역을 통해 완성되기를 소망하였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였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은 바울의 삶과 선교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동참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삶은 그의 성품과 삶을 그리스도와 닮게 하였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복음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전도의 세 가지 양식인 선포 (proclamation), 설득 (persuasion), 현존 (presence)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 (either...or)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both...and)를 이루어 복음증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⁶³⁾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과 죽음 없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음을 가르쳐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이다.

63) Herbert Kane. "The Work of Evangelism."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edited by Ralph D. Winter &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2), D33-35.

참고문헌

- 박수암. 1991. "바울이 가진 종말사상과 윤리." 「목회와 신학」 1991년 12월호: 147-155.
- 서정운. 1991. "선교신학자, 바울." 「목회와 신학」, 1991년 12월호: 113-120.
- 윤병국. 2002. "타문화권 선교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선교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 전광식. 2000. "영성운동에 대한 비판", "경건의 길" 「고신신학」 2호. 2000년 겨울.
- 황창기. 2000. "신약 '경건' 의 기독교론적 이해," 「고신신학」 2호. 2000년 겨울.
- Barclay, William. 1989. *Ambassador for Christ*. 이회숙 역. 「바울의 생애와 선교」, 서울: 종로서적.
- Furnish, Victor Paul. 1968. *Theology and Ethics in Paul*. New York: Abingdon Press.
- Leroy Eims. 1981[1992]. *The Lost Art of Disciple-making*. 김의자 역. 「제자 양성의 비결」, 서울: 보이서사.
- Bruce, F. F. 1977.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Grosheide, F. W. 1953.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Guthrie, Donald. 1957.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Hendrickson, William. 1995.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박상훈 역. 「고린도후서주석」, 서울: 아가페.
- _____. 1994.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김용섭 역. 「데살로니가전후서」, 서울: 아가페출판사.
- Hengel, Martin. 1982. *The Crucifixion*. 김명수 역. 「십자가 처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Hingley, C. J. H. 1995. "Spirituality." In *New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and Pastoral Theology*. edited by David J. Atkinson and David H. Fie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Hodge, Charles. 1995. *Th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김영배 역. 「코린도전서 주석」, 서울: 아가페 출판사.

Josephus. 1987.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요세푸스 1, 2: 유대 고대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Kane, Herbert. 1978[1993].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_____. 1988.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이재범 역.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서울: 도서출판 나단.

_____. 1992. "The Work of Evangelism."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edited by Ralph D. Winter &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D31-35.

Kähler, Martin. 1971. *Schriften zur Christologie und Mission*. Munich: Chr. Kaiser Verlag.

Kittel. G. 1964.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_____. 1965.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Lewis, Jessie Penn. 1988. *The Cross of Calvary*. 채천석 역. 「갈보리의 십자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Morris, Leon, 1958.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Neil, Stephan. 1990[1964].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London: Penguin Books Ltd.

Ridderbos, Herman. 1975.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Stott, John. 1986. *The Cross of Chris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_____. 1981. *Our Guilty Silence*. 「전도하지 않는 죄」, 김영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_____. 1987. 「디모데후서 강해, 복음을 지키라」, 김영배 역. 서울: 엠마오.

Geerhardus Vos. 1953. *The Pauline Eschatolog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초기 비잔틴기독교에서의

수도적 삶

— Klimakos와 Maximos를 중심으로 —

Ascetic-Monastic Life in the Early Byzantine Christianity

전광식 교수

Prof. Dr. Koang-Sik Chon

들어가는 말	_ 84
Johannes Klimakos	_ 87
Maximos Homologites	_ 96
나가는 말	_ 108